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 Update

요약

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멕시코 및 캄보디아 Avian Influenza human infection in Mexico and Cambodia

멕시코와 캄보디아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A(H5)형 인체감염 환자 추가 발생

- 멕시코에서 올해 두 번째 AI A(H5)형 인체감염 사례가(23세 여성) 보고됐고, 캄보디아에서는 올해 17번째 AI A(H5N1)형 인체감염 사례가(3세 여아) 보고되어 양국은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등을 강화하여 대응 중
 - WHO 및 ECDC는 AI 인체감염 위험 수준을 일반인은 “낮음”, 직업적 노출 등 고위험군은 “낮음-중간”으로 평가함
- 현재까지 국내 AI 인체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으나 해외에서 조류 접촉 등에 의한 인체감염이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야생조류, 가금류, 길고양이 등의 사체, 분변 등에 접촉 자제. 특히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는 살처분 이후 10일 이내 결막염, 발열,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 권고

2. 치쿤구니야열 지역감염, 미국 First locally acquired case of chikungunya in New York State, USA

미국 뉴욕주의 첫 번째 치쿤구니야열 지역감염 사례 보고(미국에서 '19년 이후 6년 만의 발생)

- 미국 뉴욕주에서 올해 첫 치쿤구니야열 지역감염 사례를 보고(10.14.)했으며, 미국에서 '19년 이후 6년 만에 발생한 지역감염 사례임. 환자는 롱아일랜드 나소(NASSAU) 카운티 거주자로 8월에 거주지 외 지역을 여행한 후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해외 여행력은 없음
- 뉴욕주 일부 지역에서 서식하는 흰줄숲모기에서 현재까지 치쿤구니야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계절적으로 모기 활동이 감소하고 있어 뉴욕주 보건당국은 지역 내 감염 위험을 '매우 낮음'으로 평가함
- 국내에서는 치쿤구니야열 해외 유입 사례만 보고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방문 후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았음. 치쿤구니야열 유행 지역 여행 시 모기물림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발열, 관절통, 발진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인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려 치쿤구니야열 적극 진단에 협조할 것을 권고

3. 1형 옴폭스, 미국 및 스페인 Clade I Mpox in the USA & Spain

미국 및 스페인에서 자국 내 최초의 1형 옴폭스 지역감염 추정사례 발생

- '25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내 최초의 1형 옴폭스 지역감염 추정사례 3명이 보고되었으며 (롱비치 1명, 로스앤젤레스 2명), 모두 해외 여행력이 없고 서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음. 한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내 최초의 1b형 옴폭스 지역감염 추정사례가 보고됨(10.10.). 환자는 해외 여행력은 없으나 지역사회에서의 성 접촉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미국 및 스페인 보건당국은 자국 내 1형 옴폭스의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다만, 일반 대중의 1형 옴폭스 감염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함
- 현재까지 1형 옴폭스의 국내 유입 사례는 발생하지 않음. 1형 옴폭스의 지역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방문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야생동물 접촉 및 섭취를 삼가고, 오염된 물품은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권고함

4. 라임병, 체코 Lyme diseases in Czechia

'25년 9월 말까지 체코에서 '24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라임병 발생 사례 보고

- 체코에서 '25년(~9월) 라임병 사례가 7,994건 보고되어 역대 가장 많은 발생을 기록 중이며,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배 증가함
- 올해 월간 발생이 1월~6월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7월부터는 전년 동기간의 2배 이상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
- 라임병 증가 요인으로 진드기 활동 기간 연장, 야외 활동 증가, 라임병과 매개체가 같은 진드기매개 뇌염의 동시 유행이 언급됨
- 국내에서도 라임병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라임병 발생 지역 방문할 때는 야외 활동 시 적절한 의복 등을 착용하고, 노출 이후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함

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멕시코 및 캄보디아 Avian influenza human infection in Mexico and Cambodia

발생 상황

멕시코에서 '25년 두 번째 AI A(H5)형 인체감염 발생이 보고되었고, 캄보디아에서는 올해 17번째 AI A(H5N1)형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됨

- 멕시코에서 '25년 두 번째 H5형* AI 인체감염 사례가 약 6개월만**에 보고됨(10.15.). 환자는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23세 여성으로 평소 기저질환이나 해외 여행력은 없었고, 병원 입원 치료 후 회복됨. 환자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알려진 바 없으나, 환자의 반려견 및 거주지 인근에 서식 하던 가금류와 비둘기의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A(H5)가 검출되었음¹⁾

* 해당 사례는 조류인플루엔자 A(H5)까지만 확인된 상태이며, 뉴라미니다아제(NA)형 확인 검사 진행 중

** 멕시코 첫 번째 AI A(H5N1)형 인체감염 사례가(3세 여아, 사망) '25.4.8. 보고됨

- 환자의 밀접접촉자 41명을 확인하여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약 조치를 하였고, 41명 모두 PCR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추가 전파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캄보디아 캄퐁스페우(Kampong Speu)에 거주하는 3세 여아의 AI A(H5N1)형 인체감염 발생이 보고됨(10.16.). 환자는 고열, 구토, 기침, 복통 등의 증상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이며,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조사 중이나 증상 발생 일주일 전부터 환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가금류가 병들어 폐사한 것이 확인됨²⁾³⁾
 - 캄보디아에서는 '05년에 AI A(H5N1)형 인체감염이 처음으로 발생한 후 '14년까지 매년 발생하다가 '15년부터 '22년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음. '23년 이후 누적 감염 사례는 총 33명이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보고되고 있음

※ 캄보디아 AI A(H5N1)형 인체감염 누적 89명 발생(51명 사망, '25.10.21. 기준)

상황 평가

- 멕시코 및 캄보디아 보건당국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대응 중
- WHO⁴⁾ 등은 AI 인체감염 위험 수준을 일반인의 경우 “낮음”, 직업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낮음-중간”으로 평가함
-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으나 해외에서는 조류 등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으므로 주의 필요⁵⁾

※ 야생조류, 가금류, 길고양이 등의 사체, 분변 등에 가급적 접촉자제를 권고함. 특히,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는 살처분 이후 10일 이내 결막염, 발열,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 권고

- 멕시코 보건당국은 인체, 동물, 환경 감시를 통합한 One Health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감염원 조사, 바이러스 분석, 예방조치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 중임. 캄보디아 보건당국도 환자의 역학조사, 밀접접촉자의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약 조치 및 추적관찰, AI 인체감염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캠페인 진행 중

- WHO는 AI 인체감염에 대해 현재까지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나 그에 대한 증거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WHO(7.28., 9.29.) 및 유럽질병예방관리센터(7.4.)는 AI 인체감염 위험 수준을 일반인은 “낮음”, 직업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낮음-중간”으로 평가함
- 현재까지 국내에서 AI 인체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으나 해외에서는 조류 등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야생조류, 가금류, 길고양이 등의 사체, 분변 등에 가급적 접촉 자제를 당부함. 특히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는 살처분 이후 10일 이내 결막염, 발열,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도록 권고함

1) Epidemiological Update Avian Influenza A(H5N1) in the Americas Region (WHO/PAHO, '25.10.15.)

2) Bird flu case in a 3-year-old girl (캄보디아 보건부, '25.10.16.)

3) Communicable disease threats report Week 42, 11-17 October 2025 (ECDC, '25.10.17.)

4) Influenza at the human-animal interface summary and assessment, 29 September 2025 (WHO, '25.9.29.)

5) 보도자료 |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 (질병관리청, '25.9.15.)

2. 치쿤구니야열 지역감염, 미국 First locally acquired case of chikungunya in New York State, USA

발생 상황

- 미국 뉴욕주에서 올해 첫 치쿤구니야열 지역감염 사례가 보고되어 미국에서 '19년 이후 6년 만에 발생한 치쿤구니야열 지역 감염 사례임(미국 본토 기준 10년 만에 발생)
- '25년(9.20. 기준) 미주 지역 내 14개국에서 치쿤구니야열 의심 사례 228,591명이 보고되어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던 '24년의 56% 수준(동 기간 기준)
- '25년 10월 14일 뉴욕주 보건당국은 올해 첫 번째 치쿤구니야열 지역감염 사례를 보고하였으며, 미국에서 '19년 이후 6년 만에 발생한 치쿤구니야열 지역감염 사례임. 환자는 룡아일랜드 나소(NASSAU) 카운티 거주자로 8월에 거주지 외 지역을 여행한 후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해외 여행력은 없음¹⁾
- 뉴욕주 보건당국은 감염 추정지역 등에 대한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관할지역의 모기에서는 현재 까지 치쿤구니야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치쿤구니야열의 지속적인 전파 증거가 없다고 언급함¹⁾²⁾
- 미국의 치쿤구니야열 지역감염은 본토의 경우 '14년 플로리다(12명) 및 '15년 텍사스(1명)에서 보고 됐었고, 해외 영토에서는 '14년~'19년 동안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발생함³⁾
 - ※ 미국에서 최근 5년('21년~'25년 9월) 치쿤구니야열 발생은 해외 유입 사례만 보고됨('25년 88명, '24년 199명, '23년 152명, '22년 81명, '21년 36명)
- '25년 9월 20일 기준 미주 전역에서 치쿤구니야열 유행 지속 중으로 브라질 등 총 14개국에서 228,591명의 의심 사례가 보고됨(이 중 100,329명 확진, 115명 사망)⁴⁾
 - ※ 미주 지역에서 '24년 총 431,417명 발생하여 '14년(708,972명 발생) 이후 가장 많은 발생 보고⁵⁾
- 브라질은 전 세계적으로 치쿤구니야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미주 지역 확진자 및 사망자의 96%가 브라질에서 보고됐고,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곳은 볼리비아로 현재까지 5,327명의 의심 사례가 보고됨



그림 2-1. '25년 1월~9월, 전 세계 치쿤구니야열 발생 분포 (WHO DON, '25.10.3.)

* WHO 보고건 및 보건부 공식자료만 반영, 브라질 등 일부 지역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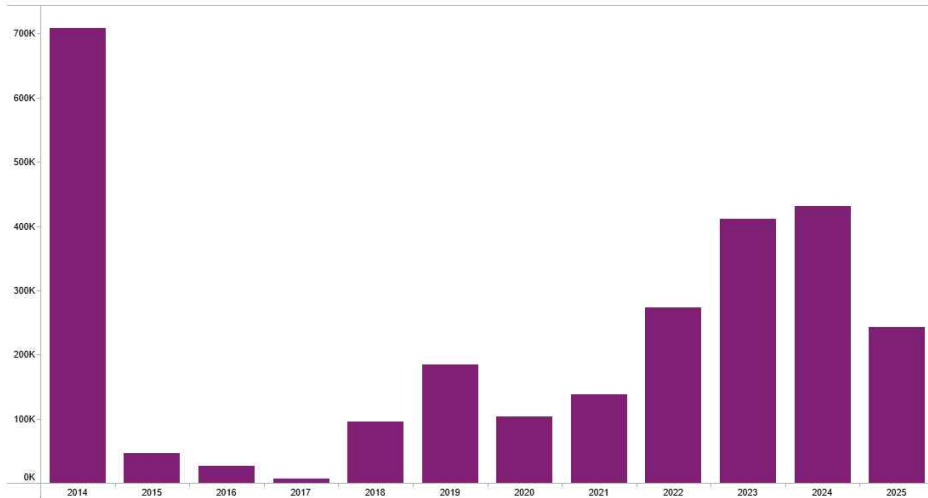


그림 2-2. '14년~'25년(10.21.기준) 미주 지역 치쿤구니야열 의심 사례 발생 (WHO/PAHO, '25.10.21.)

상황 평가

- 치쿤구니야열 매개체인 흰줄숲모기가 뉴욕주 일부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치쿤구니야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계절적으로 모기 활동이 감소하고 있어, 뉴욕 주 보건당국은 지역 내 치쿤구니야열 감염 위험을 '매우 낮음'으로 평가함
- 국내에선 치쿤구니야열 해외 유입 사례만 보고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방문 후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았음. 치쿤구니야열 유행 지역 여행 시 모기물림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발열, 관절통, 발진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인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려 치쿤구니야열 적극 진단에 협조할 것을 권고함

- 치쿤구니야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흰줄숲모기는 롱아일랜드 교외를 포함한 뉴욕시 일부 지역에 서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모기 감시에서 치쿤구니야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 보건당국은 계절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모기 활동이 감소하고 있어 뉴욕주의 감염 위험을 '매우 낮음'으로 평가함(10.14.)
- WHO는 치쿤구니야열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매개체 감시 및 방제, 환자 발생 감시 강화, 중증 사례 고위험군 파악, 잠재적 합병증 교육 및 사망 예방 등 임상 관리, 지역사회 소통 역량 개발 등을 권장함(10.3.)
- 국내에서는 치쿤구니야열 해외 유입 사례만 보고되고 있으며, '13년 첫 유입 사례 후 '25년까지 (~9.23.) 총 74명이 신고되었고⁶⁾, 동남아시아(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방문 후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았음. 치쿤구니야열 유행 지역 여행 시 모기물림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발열, 관절통, 발진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인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려 치쿤구니야열 적극 진단에 협조할 것을 권고함⁷⁾

1)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Confirms First Locally Acquired Case of Chikungunya in New York Stat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 '25.10.14.)

2) New York health officials confirm first locally acquired chikungunya virus case (AP News, '25.10.16.)

3) Chikungunya in the United States (美CDC, '25.9.30.)

4) Chikungunya virus disease- Global situation (WHO Disease Outbreak News, '25.10.3.)

5) WHO PAHO ARBO Portal (WHO/PAHO, '25.10.21)

6) 감염병 포털,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 (질병관리청, '25.9.23.)

7) 보도참고자료 | 질병청 치쿤구니야열 유입 대비 상황 점검 (질병관리청, '25.7.29.)

3. 1형 옴폭스, 미국 및 스페인 Clade I Mpox in the USA & Spain

발생 상황

- '25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내 최초의 1형 옴폭스 지역감염 추정사례 3명이 보고됐으며(롱비치 1명, 로스앤젤레스 2명), 모두 해외 여행력이 없고 서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음
-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내 최초의 1b형 옴폭스 지역감염 추정사례가 발생함. 해외 여행력은 없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성 접촉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 '25년 10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Long Beach) 시에서 해외 여행력이 없는 주민의 1형 옴폭스 감염이 보고됨. 미국의 7번째 1형 옴폭스 사례이자 최초의 지역감염 추정사례이며, 환자는 입원 치료 후 현재 자택에서 격리 및 회복 중임. 롱비치 보건당국은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및 美CDC와 협력하여 상황 모니터링, 의료인 및 지역사회 대상 교육, 롱비치 및 인근 지역의 추가 감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¹⁾
- 또한 같은 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카운티에서도 해외 여행력이 없는 주민 2명의 1형 옴폭스 감염이 보고됨(10.16.). 환자들은 입원 치료를 받고 현재 회복 중이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당국은 추가 사례 및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을 진행 중임²⁾
-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상기 환자들 간에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옴폭스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2회) 권고 및 옴폭스 감염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³⁾

■ 스페인⁴⁾⁵⁾⁶⁾

- '25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b형 옴폭스 지역감염 추정사례가 보고됨(10.10.)
 - 환자는 발진, 발열, 국소림프절염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10.3.)하였고 이후 병변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1형 옴폭스가 확인됐고(10.7.), 추가 분석을 통해 세부 아형은 1b로 식별됨(10.10.)
 - 환자는 최근 해외 여행력이 없으며 마드리드에서 성 접촉력이 있었음. 또한 과거('23년) 옴폭스 백신 접종력이 있고(2회), 현재 경미한 증상으로 자택에서 격리 중임
- 스페인의 첫 번째 1형 옴폭스(Clade 1b) 사례는 '25년 9월에 보고된 탄자니아 여행력 있는 해외유입 환자이며, 이번 사례는 최초의 지역감염 추정사례로 보건당국은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모니터링을 진행 중임

상황 평가

- 미국 및 스페인 보건당국은 자국 내 1형 옴폭스의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다만 일반 대중의 1형 옴폭스 감염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함
- 현재까지 1형 옴폭스의 국내 유입 사례는 발생하지 않음. 옴폭스 유행 지역 방문 시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오염된 물품은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권고함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최근 발생한 1형 옴폭스 사례로 인해 지역사회 내 1형 옴폭스의 확인되지 않은 전파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언급하면서, 일반 대중의 옴폭스 감염의 위험은 낮지만 고위험군의 옴폭스 백신 접종을 강조함³⁾
- 스페인의 1b형 옴폭스 지역감염 추정사례에 대해 ECDC는 스페인 내 성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하면서 환자 및 환자와 성 접촉력이 있는 자들이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을 토대로 스페인 내 특정 집단에서 1b형 옴폭스가 유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함⁵⁾. 또한 스페인 보건당국은 옴폭스 추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 전파될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함⁴⁾
- 현재까지 1형 옴폭스의 국내 유입 및 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음. 1형 옴폭스의 지역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방문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야생동물 접촉 및 섭취를 삼가고, 오염된 물품은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권고함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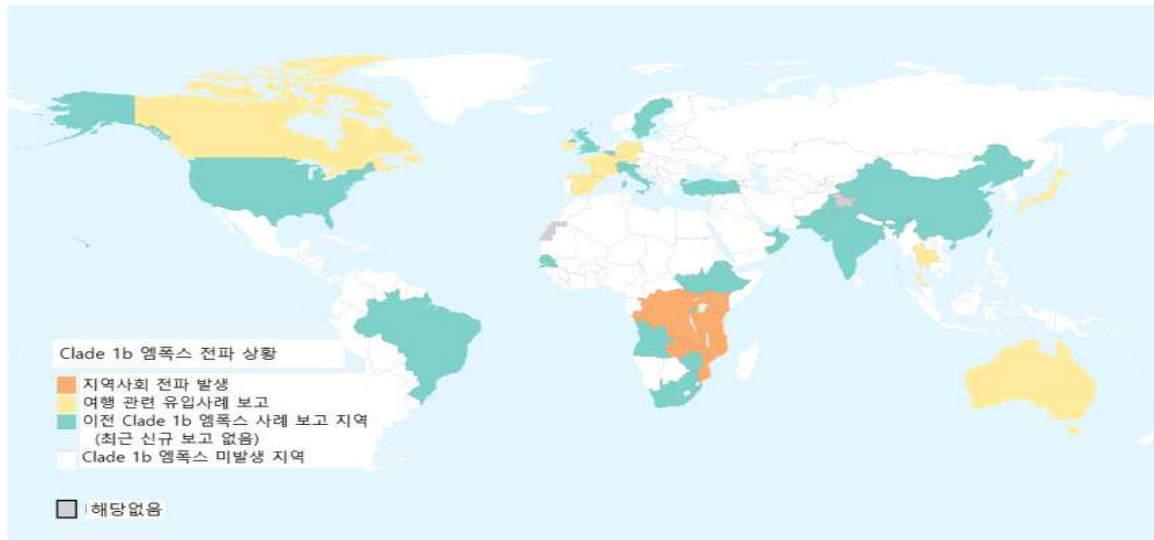


그림 3-1. 전 세계 Clade 1b 옴폭스 발생 지역 현황 (WHO, 10.14. 기준)

1) 보도참고자료 | City of Long Beach Confirms First Case of Clade I Mpox (롱비치 보건당국, '25.10.14.)
 2) County Public Health Confirms Its First Case of Clade I Mpox - Case not linked to travel; Public health urges vaccination, testing, and prevention (로스앤젤레스 보건당국, '25.10.16.)
 3) Community Spread of Clade I Mpox Within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보건당국, '25.10.17.)
 4) Informe de situación sobre un caso autóctono de mpox clado 1b (스페인 보건부, '25.10.16.)
 5) Communicable disease threats report, week 42 (ECDC, '25.10.17.)
 6) 언론보도 | Madrid detecta el primer caso autóctono de viruela del mono de la variante más grave (마드리드, '25.10.10.)
 7)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제36호 (질병관리청, '25.9.19.)
 8) WHO Global Mpox Trends (WHO, '25.10.14.)

4. 라임병, 체코 Lyme disease in Czechia

발생 상황

체코에서 '25년(~9월) 라임병 사례가 7,994건 보고되어 역대 가장 많은 발생을 기록 중이며,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배 증가함

- 체코에서 '25년(~9월) 라임병 사례가 7,994건 보고되어 전년 동기간(4,031건) 대비 약 2배 증가함. 또한 1986년 국가 라임병 감시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였던 1995년의 6,302건을 25% 이상 초과하여 역대 가장 많은 발생을 기록 중임. 2000년 이후 작년까지 연간 약 3,000건~5,000건 수준으로 발생함¹⁾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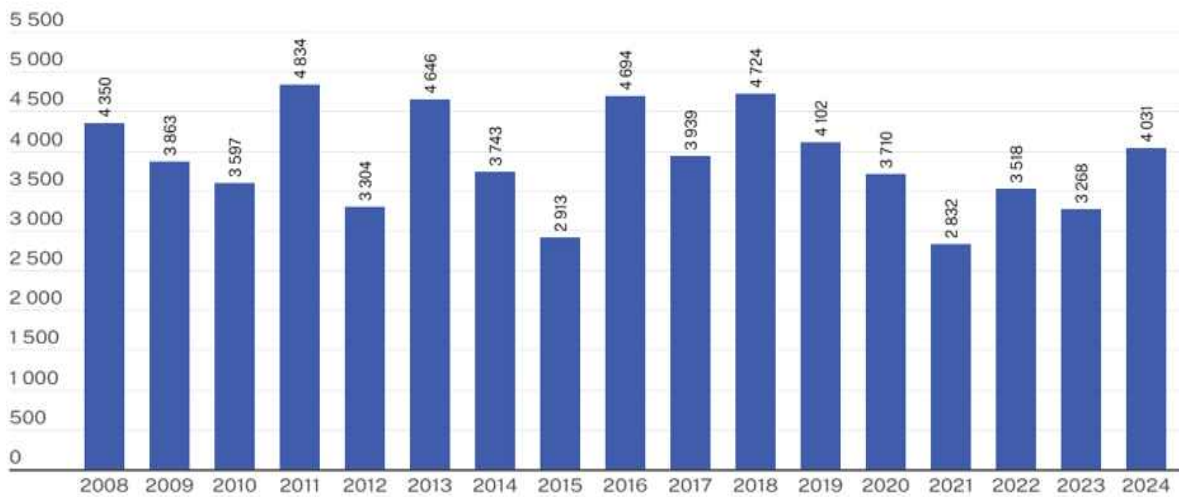


그림 4-1. '08년~'24년 체코 라임병 발생 현황⁴⁾ (체코 국립공중보건원, '25.3.25.)

- 체코 국립공중보건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월간 발생이 1월~6월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7월부터는 전년 동기간의 2배 이상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⁵⁾

표 4-1. '24년~'25년 1월~9월 체코 라임병 발생 현황 (체코 국립공중보건원, '25.10.2.)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5년	7,994	208	120	102	118	239	527	1,744	2,645	2,293
'24년	3,085	138	92	96	180	279	453	700	647	501

- 또한 현재 체코에서 라임병과 진드기 매개 뇌염(Tick-borne encephalitis: TBE)이 동시 유행 중으로 각 질병의 매개체(*Ixodes ricinus*)가 동일하며, TBE의 경우 올해 585건 발생해 전년 동기간(549건) 대비 6.6% 증가함¹⁾²⁾³⁾⁵⁾

상황 평가

- 체코 전문가들은 라임병 증가 요인으로 진드기 활동 기간 연장, 야외 활동 증가, 라임병과 매개체가 같은 TBE의 동시 유행을 언급함
- 국내에서도 라임병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라임병 발생 지역 방문할 때는 야외 활동 시 적절한 의복 등을 착용하고, 노출 이후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함

- 체코 전문가들은 현재 라임병 증가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언급함¹⁾²⁾³⁾
 - ① 매개체 및 환경 요인: 진드기는 실외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온난한 기후로 진드기 활동기간이 늦가을까지 연장 예상 ② 노출 요인: 야외 활동 증가(버섯 채취 등), 야외 근로자, 고령자, 소아에서 발생률이 높음. ③ 동시 유행: 라임병과 TBE의 매개체가 같음. 체코의 TBE 백신 접종률*이 주변국인 독일(67%), 오스트리아(81%) 보다 낮음
- * 체코 TBE 백신 접종률: 65세 이상 약 39%, 55세~64세 37%, 35세~54세 46%, 4세~6세 57.6%, 3세 이하 35%
- 체코 보건당국은 라임병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기피제 사용, 적절한 의복 및 신발 착용이 필요하며, 노출된 경우 진드기를 조기에 제거하고, 환자에 대한 신속한 항생제 치료 및 지역 사회 라임병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함¹⁾²⁾³⁾
- 국내의 경우 '09년 라임병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감시 중이며 국내 지역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가 모두 보고되고 있음. 라임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럽(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 및 북미 지역을 방문할 때는 야외 활동 시 적절한 의복 및 신발(긴팔 옷 등)을 착용하고, 노출 후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함⁶⁾
- ※ 국내 최근 3년 발생 현황(지역감염/해외유입): ('22년) 17명/5명, ('23년) 37명/6명, ('24년) 32명/5명

질병개요		라임병(Lyme disease) <2025년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관리지침> ⁶⁾
정의		· 보렐리아속균(<i>Borrelia burgdorferi</i> , <i>B. afzelii</i> , <i>B. garinii</i> 등)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제3급 법정감염병
병원체		· <i>Borrelia burgdorferi</i> - 3개 유전형: <i>Borrelia burgdorferi sensu stricto</i> , <i>Borrelia afzelii</i> , <i>Borrelia garinii</i>
매개체		· 참진드기(<i>Ixodes</i> 속)
감염경로		·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됨 - 국내 주요 매개체: 산림참진드기(<i>Ixodes persulcatus</i>), 일본참진드기(<i>I. nipponensis</i>), 남방참진드기(<i>I. granulatus</i>), 사슴참진드기(<i>I. ovatus</i>)
잠복기		· 3일~30일
호발시기		· 여름철(미국 등지에서 주로 여름철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계절적 특성을 설명한 만큼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음)
임상증상		· 주로 유주성 홍반(erythema migrans)이 대부분(70~80%) 환자에서 관찰됨 -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 부위는 호전되고 주변부로 퍼져나가는 과녁 모양의 홍반 - 5cm 이상 크기, 한 개 이상이 생길 수 있음 · 임상결과 1) 초기 국소성 감염 - 진드기에 물린 1주~3주 후 물린 부위를 중심으로 유주성 홍반 발생 - 발열, 오한, 피로감, 우통, 관절통 등 전신증상 발생 2) 초기 파종성 감염 - 노출 후 3주~10주가 지나면,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일부에서 신경학적 증상 (뇌수막염, 뇌신경염 등), 심혈관계 증상, 이차성 유주성 홍반 발생 * 원발성 유주성 홍반에 비해 크기가 작은 여러 홍반들이 얼굴, 손, 발 등 다양한 부위에 발생 3) 만성 감염 - 수주~수년 후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약 60%에서 주로 무릎 부위에 만성 관절염 발생
진단		· 검체(혈액, 뇌척수액, 피부생검조직)에서 보렐리아균 분리 동정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간접면역형광항체법(또는 ELISA)과 웨스턴블롯법으로 특이 항체 검출
치명률		· 0.1% 미만(국내는 2015년에 1명(해외유입) 사망)
치료		· 독시사이클린, 아목시실린, 세퓨록심, 아지스로마이신과 같은 항생제 치료
환자관리		· 환자격리접촉자격리: 필요 없음 · 환자의 헌혈 금지
예방		· 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사용가능한 백신 없음

1) Czechia: 7994 Lyme disease cases reported by September 2025, with a concurrent increase in tick-borne encephalitis transmitted by a common vector (BEACONBIO, '25.10.19.)
 2) 언론보도 | Lyme disease cases in Czechia reach record high since 1986 (Radio Prague International, '25.10.18.)
 3) 언론보도 | 올해 체코에서는 라임병 환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iDNES, '25.10.21.)
 4) 국가건강정보포털: 라임병 (체코 보건부 건강정보 통계연구소, '25.3.25.)
 5) Cases of selected infectious diseases in the Czech Republic, January–September 2025 (체코 국립공중보건원, '25.10.2.)
 6) 2025년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25년)

참고사항

전 세계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현황('25.10.22.기준)

구분	발생 상황
주간 신규 발생 (25.10.16~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1명*(23세 여성), 캄보디아 1명(3세 여아) 발생 보고, 모두 정확한 감염경로는 알 수 없음 * A(H5)형 발생 보고
'25년 발생 (10.22.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국에서 32명 발생(사망 11명) - 캄보디아(17명, 사망 8명), 미국(4명), 방글라데시(4명), 인도(2명, 사망), 중국(1명), 영국(1명), 베트남(1명), 멕시코(2명, 사망 1명)
전 세계 누적 발생 ('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국에서 993명 발생(사망 476명, CFR 47.9%) - 미국(71명, 사망 1명), 캄보디아(89명, 사망 51명), 중국(57명, 사망 32명), 방글라데시(12명, 사망 1명) 등
주요기관 위험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9.29.) 및 ECDC(7.4.)는 H5N1형 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일반인에 대한 공중보건 위험을 “낮음”, 직업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감염 위험을 “낮음-중간”으로 평가함 · 미CDC(2.28.)는 H5N1형 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일반인구(개인 및 집단)의 건강 위험은 낮으나, 감염된 동물이나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중간-높음”으로 평가함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대상

어린이

2012. 1. 1. ~ 2025. 8. 31. 출생자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65세 이상

1960. 12. 31. 이전 출생자



일정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 9. 22.(월) ~
1회 접종 대상자 | 9. 29.(월) ~

임신부

9. 29.(월) ~

65세 이상

75세 이상 | 10. 15.(수) ~
70 ~ 74세 | 10. 20.(월) ~
65 ~ 69세 | 10. 22.(수) ~

→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백신

3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 ~ 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자는 2회 접종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단, 접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사전 확인 필요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에 주의해야 합니다!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 전신 이상반응 :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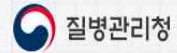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2024.8.19.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한 0.1% 수준이나,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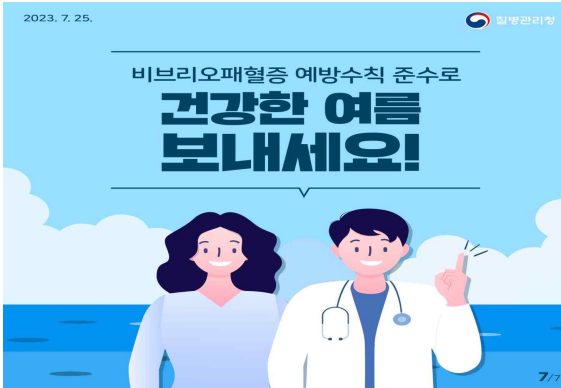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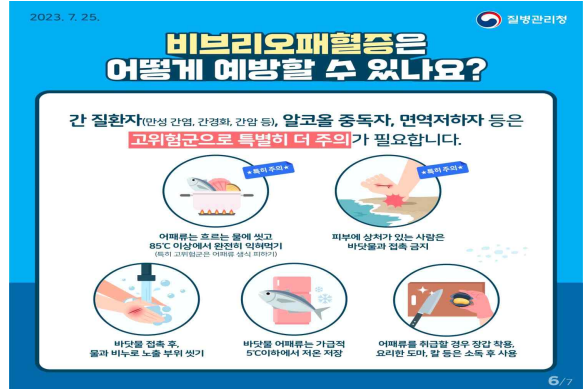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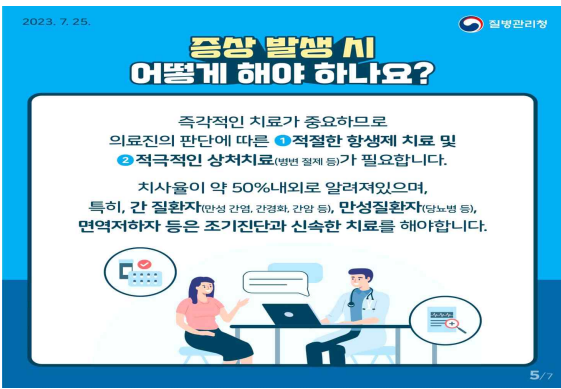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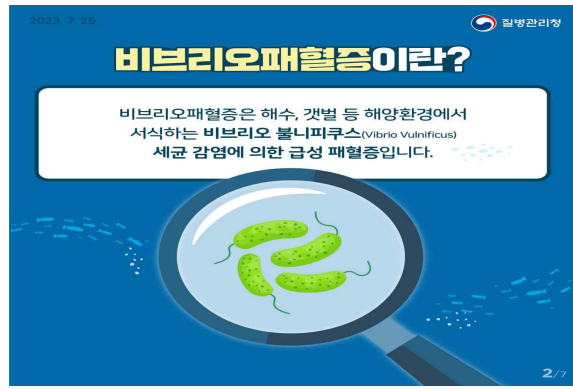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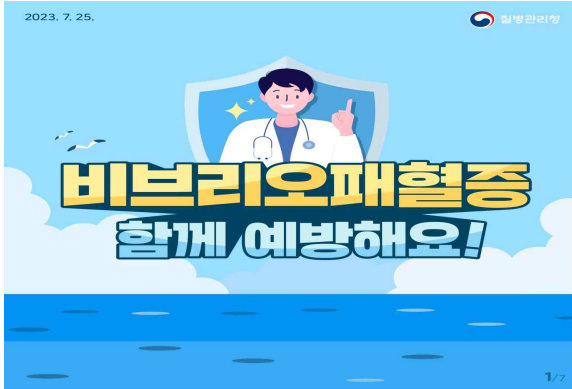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2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
- 3 기침할 땐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기
- 4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5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지켜주세요!

- 1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 2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 자제하기
- 3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기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가능
- 4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쉬는 문화 만들기



비브리오패혈증 함께 예방해요!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홍보 리플릿(대국민용)

진드기 매개 감염병!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예방 3 풀숲 피하고



예방 4 털고, 씻고, 빨래하고

털고

에어컨으로 진드기 털기



씻고

전신 샤워 및 진드기 찾기



빨래하고

아외복 분리 세탁하기



3GO! 진드기는 흔적을 남깁니다!

관리 1 증상 살펴보고!



고열/오한



두통



근육통



오심/구토/설사

관리 2 물린 흔적 찾아보고!



검은 딱지







물린 자국

관리 3 빨리 치료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 프쯔기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
- 주로 텃밭작업 등 농작업을 하거나, 등산, 나뭇채취 등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감염위험이 있습니다.
- 발열,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므로 병원 진료 시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 5명 중
1명 사망
(2013~2019년, SFTS 기준)

의심 즉시 **의료기관 방문**





진드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전 세계 감염병 동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소식> 주간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

16